

한국의 관광콘텐츠 : 8경에 관하여

Tourism Contents : Palkyung

지봉구*
청주대학교

Jee bong-gu*
Chungju Univ.

요약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을 지역경제 진흥수단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팔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관광대상물로서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연구자는 팔경의 관광자원적 활용 방안으로 팔경문화권의 교육적 활용, 새로운 시와 그림으로 팔경의 현대화 작업, 슬로우 라이프 공간으로서의 활용(정적 공간), 스토리텔링 등의 재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Eight-view of Xiao and Xiang Rivers had been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Myoungjong in the Goryeo dynasty, various types of landscape paintings in eight view compositions continued to be appreciated throughout the Choson dynasty.

I. 서론

1. 문제제기

고려시대 후기 이후 우리나라에 전래된 8경은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식과 특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한국은 옛날부터 산고수려라 하여 고려라고 했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라 하여 조선이라고 불려왔다. 자연과의 조화에 의거하여 살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8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전체의 40%정도가 입지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화적 자연경관이 많은 곳이다.

지역적인 범위는 국가단위의 대한팔경이 있고, 도단위의 관동팔경 등과 같이 광역적인 것이 있고, 시나 군단위의 단양팔경, 수원팔경, 충주팔경, 밀양팔경, 목포팔경 등과 같이 지역적인 것도 있다.

이렇듯 국내의 이름난 경승지나 명승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8경이나 9곡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을 지역경제 진흥수단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관광대상물에 대한 명칭부여를 통해 사소한 경관이라도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재창조하는 행위를 통하여 의미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금강산은 지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작은 언덕이나 계곡에 까지 명칭을 부여하고, 그 장소와 어울리는 전설이 함께 체험되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것이다(강영조·김영란, 1991).

팔경은 과거의 소수의 선비들에 의해 향유되고, 이용되던 독점적인 산물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누구나 이용가능한 관광대상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대상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 소상팔경을 소재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를 함으로써 그 관광자원적 활용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 분포하는 팔경(구곡, 십경)을 소재로 한 관광콘텐츠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인문학적, 경관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관광의 대상물로서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3.1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2010년을 목표로 연도로 설정하도록 한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남한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내용적 범위는 팔경시의 역사, 지정과 이용에 관한 현황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팔경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팔경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도되고, 많은 부분에서 괄목한 성장이 있었으나, 관광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로 관광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관광학적인 접근에서는 관광자원 및 관광대상으로서의 접근, 경관론적 접근, 그리고, 장소마케팅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8경의 기원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은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덟 가지 경치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소상은 소강과 상강은 호남(湖南)성 동정호(洞庭湖)남안(南岸) 부근에 지역을 일컬으며, 팔경은 이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계절과 기상과 경물이 배합되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여덟 지역이다.

실경을 바탕으로 탄생된 소상팔경도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된 관념산수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표 1] 중국의 소상팔경

山市晴嵐 = 山市 + 晴(氣象) + 嵐(景物)
煙寺暮鐘 = 煙寺 + 暮(時) + 鐘(景物)
遠浦歸帆 = 遠浦 + 歸帆(景物)
漁村夕照 = 漁村 + 夕(時) + 照(景物)
瀟湘夜雨 = 瀟湘 + 夜(時) + 雨(景物)
洞庭秋月 = 洞庭 + 秋(時) + 月(景物)
平沙落雁 = 平沙 + 落雁(景物)
江天暮雪 = 江天 + 暮(時) + 雪(景物)

자료 : 김동필 · 이기철 · 아오키 요지(青木 陽二)(1997),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1)

우리나라 작가들은 가본 적이 없는 중국의 절경을 8주제의 화의를 통하여 상상하여 화폭에 옮겼기 때문에 8주제의 고정적인 상징은 반드시 표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작품에서는 드문 소나무 등을 화폭에 그려 넣었다. 이로써 소상팔경을 군자상이 표출된 이상화된 고전경으로 완성하려는 사대부 관료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2. 팔경의 발전과정

안장리(2002)는 팔경시의 발전양상을 형성기, 집성기, 전환기, 확대기 등으로 대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각 시대별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2] 팔경시의 발전과정

구분	대표자	특징
형성기	이인로, 이규보	상층의 유람문화 향유
발전기	이제현, 정도전	우리 국토를 대상
집성기	안평대군, 서거정	전국토의 팔경화
전환기	김종직	개인의 수양공간
확대기	이항	루정까지 팔경의 대상

자료 : 안장리(2007), "조선시대 왕의 팔경 향유 양상," 동양학 제42호, 단대 동양학연구소

첫째, 형성기는 팔경시의 국내 유입과 한국팔경시의 형성에 대한 자료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고, 대체로 무신정권기를 전후한 시기에 팔경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팔경시로는 김극기의 강릉팔경시, 명종대의 성사, 유락지의 팔경시화 등이 있다.

둘째, 발전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신도팔경시가 창작되는 시기이다. 팔경시의 전범을 창조한 이제현, 지방(삼척과 동남)의 팔경시를 지은 안축, 자신의 연계지역을 팔경시로 표현한 이색 등이 있다.

셋째, 집성기는 안평대군에 의해 소상팔경시첩이 제작됨으로써 다시 소상팔경시의 진흥기를 보이는 시기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평대군, 서거정, 이행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 사람들은 개인적인 은거지를 대상으로 팔경시를 창작하여, 전국적인 분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2. 8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선행연구)

소상팔경에 대한 연구분야를 전경원(2007)은 크게 다섯 분야(문학적 접근, 미술사적 접근, 음악적 접근, 문학과 회화 측면, 도시공학적 측면)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문적 접근, 회화적 접근, 경관론적 접근, 장소 마케팅 접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1 인문학적 접근

소상팔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술사학 보다 먼저 시도된 부분이 문학분야이다. 최초의 연구는 1939년 이희승 박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소상팔경 가사의 원문을 제시하고, 어구를 주해하여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 의의가 크다(전경원, 2007, 33에서 재인용).

김기탁(1981)은 소상팔경도의 생성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상팔경시가 한시문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송희경(1992)은 소상팔경도를 연구하면서 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 절을 할애하였으며, 전경원(2006)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안장리(2007)는 조선시대 왕의 팔경에 대한 향유형태 분석을 통해 사대부의 팔경 향유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1.2 회화적 접근

이보라(2006)는 관동팔경도의 제작배경, 특징과 성격 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관동팔경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1.3 경관론적 접근

팔경을 경관론적으로 연구한 Shinohara(1979)는 중국의 소상팔경, 서호십경, 일본의 절강팔경, 김택팔경 등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규모, 침경물, 기후, 시각, 계절 등 감상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기수(1989)는 한국의 전통 경관으로서 팔경을 연구하면서 그림과 시를 함께 참고하고 있으며, 심경호(1995)는 팔경시가 우리 국토의 경관을 공식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안계복(1991)은 정자와 누각의 경관형성기법을 정리하기 위하여 팔경 선정지역의 경관분석을 시행하였고, 강영조·김영란(1991)은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대하여 정자와 누각의 경관형성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김동필·이기철·아오키 요지(青木 陽二)(1997)는 한국과 일본의 경에 대한 차이와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팔경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1.4 장소마케팅적 접근

심상도(2002)는 수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양산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양산팔경의 선정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광코스를 설정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산팔경 선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동찬·민경숙(2003)은 연구대상지역을 충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충북지역 팔경의 유형적 특성, 입지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계획과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충청북도 충북학연구소(2007)는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연구에서 충북의 문화자산으로서 구곡문화에 대한 문화경제적 가치성을 인정하고 낙후된 충북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달천강 중·상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9개의 구곡에 대해 '구곡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산수관광과 문화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III. 한국의 8경 현황

1.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팔경 현황

강영조·김영란(1991)은 우리나라 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 분석을 통해 소상팔경과는 다른 특성을 밝혔다.

[표 3] 팔경의 유형분포

구분	빈도	비율
소상전형(장소+경물)	6	26
소상유사형(장소+경물)	76	33.0
명소체험형(장소+행위)	58	25.2

명승형(장소)	78	33.9
기타	12	5.2

자료 : 강영조·김영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 pp. 29-31.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선정되어 있는 팔경형식의 특성은 명상형, 소상유사형, 명소체험형, 소상전형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팔경의 유형분포

구분	산지	수변	인공	평지	합계
소상전형유사형	31	24	14	1	70
명소체험형	5	17	20	10	52
명승형	12	18	37	7	74
기타	5	2	1	1	9
계	53	61	72	19	205

자료 : 강영조·김영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 pp. 29-31.

둘째, 입지적 특성은 팔경으로 선정된 장소를 한국지명총람, 지명유래집 등을 이용하여 선정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산지형, 수변형, 인공시설물형, 그리고 평지형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지형태는 인공시설물형, 수변형, 산지형, 평지형 순의 분포형태를 보인다.

2. 현대 팔경의 분포 현황

권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제주도의 순으로 나타나 현대 팔경에 대한 지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선정율은 낮게 나타나 현대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선정 추이는 80년대 총3개의 팔경이 선정된 데 비해, 90년대에는 20개, 2001년 이후에 28개의 팔경이 선정되었다(김중하·배현미, 2006). 특히, 1995년 이후에 많은 팔경이 지정된 것으로 볼 때, 경관자원의 발굴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관광자원으로서의 팔경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명승지를 시와 노래, 그림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명소는 주로 12경, 10경, 9곡, 8경, 6경, 3경으로 구분지어 불렀는데, 이 중에서도 8경을 가장 많이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전국도를 대상으로 한 대한팔경은 금강산, 한라산, 석굴암, 해운대, 백두산 천지, 압록강, 부전고원, 평양 모란봉 등 우리나라 8개 명소가 소개되었다.

특히, 강릉팔경은 현대적 의미의 팔경으로 선정되었으며, 강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에 의해 선정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심상도, 2002).
 강릉의 팔경선정 이후 서울, 부산, 단양, 경남 등에서 경관이
 빼어난 곳을 대상으로 대표적 명소를 지정하여 관광홍보 차원
 에서 새로운 팔경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IV. 관광자원적 활용방안

1. 팔경문화권의 교육적 활용

팔경문화는 동양,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팔경 지정이 최초로 시작되었지만, 팔경문
 화 자체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전문한 상태이므로
 우리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팔경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경치가 좋은 곳만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한 자연관광자원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조상들의 창작과 관
 련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
 다.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교육적 옛선비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다.

2. 새로운 시와 그림으로 팔경의 현대화 작업

새로 지정된 팔경은 대부분이 공간만 존재할 뿐 현대의 경
 관언어에 의한 시나 그림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시각에 의한 현대인의 언어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작가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화전 개최
 를 통해 현대적 관점에서의 팔경의 시와 그림이 만들어질 필
 요가 있다.

팔경을 소재로 한 시화전을 통해 지역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간접적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슬로우 라이프 공간으로서의 활용(정적 공간)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더 빠르게'라는 슬로건에 심
 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평균수
 명 80세 시대에서는 여가시간의 소비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밖
 에 없다. 팔경문화는 이러한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팔경은 경관이 좋은 곳에서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안달해 온 노동시간과는 거
 리가 있다.

미래에는 슬로라이프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을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광의 하나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 공간이 팔경문화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이나 순수예술이 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듯이 팔경문
 화를 토대로 창의성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문화 발전을 모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팔경의 문화원형을 관광콘텐츠로 활
 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4. 스토리텔링 등의 재구성 필요

스토리텔링은 동화나 우화 등을 들려주는 활동에서부터 사
 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서술하거나 아름다운 정경을 시로 낭송
 하는 일 또는 미술 박물관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단순하게 읽어주는 형식에서 벗어나 문화관광해설사나, 문
 화유산해설사 등의 명칭으로 타 지역이나 타 국가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방
 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다양한 경험을 지닌 노인력들을 활용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은 국문학관련 전문가, 관
 광관련 전문가, 그리고 생태전문가 등 팔경문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이 있을 것이다.

V. 결 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을 지역경제 진흥수단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팔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관광대상물로서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전국에 분포하는 팔경(구곡, 십경)을 소재로 한 연구 필요성
 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광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팔경에 관한 선행연구는 인문학적 접근, 회화적 접근, 경관
 론적 접근, 장소마케팅적 접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팔경의 관광자원적 활용 방안으로 팔경문화권의
 교육적 활용, 새로운 시와 그림으로 팔경의 현대화 작업, 슬로
 우 라이프 공간으로서의 활용(정적 공간), 스토리텔링 등의 재
 구성을 통해 관광객 매력물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 참고 문헌 ■

- [1] 강영조·김영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 [2] 김기탁(1981), "한국 한문학: 의재의 팔경과 그 영향," 중국어문학, 영남중국어문학회
- [3] 김동찬·민경숙(2003), "충청북도 팔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 [4] 김동필·이기철·아오키 요지(青木 陽二)(1997),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5(1)

- [5] 김병국(1991), "高山九曲歌 研究 : 『精言妙選』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종하·배현미(2006), "현대팔경의 선정특성에 따른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7] 노재현·신상섭·조찬문(2007), "八景 構造分析을 통해 본 傳統 文化景觀 眺望圈域에 대한 實證的 研究 :임실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 제1호 통권 제59호, 한국전통조경학회
- [8] 서주환·김상범·로재현(2007), "제주도 우도팔경의 의미상장성 고찰,"
- [9] 송희경(1992), "중국 남송의 소상팔상도와 그 연원 연구," 이화여대 미술사학, 석사학위논문.
- [10] 안장리(1997), "韓國八景詩 研究 : 淵源과 展開를 중심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11] 안장리(2007),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 <면양정삼십영>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25집, 열상고전연구회
- [12] 안장리(2007), 조선시대 왕의 팔경(八景) 향유 양상, 동양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13] 이보라(2006), "朝鮮時代 關東八景圖의 研究,"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보라(2007), "관동지역의 팔경화 시기 연구," 忠北史學, 제18집, 忠北大學校史學會
- [15] 전경원(2006),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최기수(1989),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학위논문.